

국내 주식 투자전략

우려보다 긍정의 시각을 유지할 때



1. KOSPI,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100선 회복 시도

3월 FOMC, 금리인상 가능성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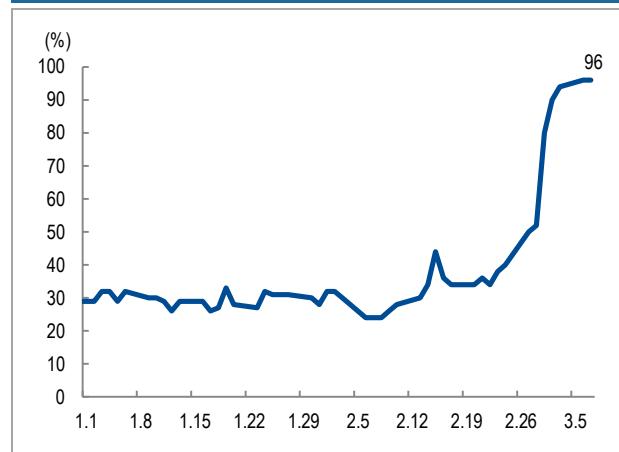
- KOSPI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2,100선 회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주 사드(THAAD)배치와 관련된 중국의 보복 제제(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 등) 강화로 KOSPI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주 초반 장중 한때 2,060선까지 되밀렸으나, 빠르게 안정을 찾는 모습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상승을 견인하였다. 다만, KOSDAQ 시장은 소폭 약세를 보이며 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하였다.
- 시장의 관심은 이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3월 FOMC 회의(14~15일)에 모아질 전망이다. 최근 엘런 의장을 포함한 주요 연준 이사들이 금리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3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어느덧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다(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금리인상 가능성 96%). 이처럼 3월 금리인상은 사실상 시장에 노출된 재료라는 점에서 금리인상 자체보다는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된 스탠스에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확인심리 속에 3월 FOMC까지는 투자자들의 관망 내지 경계심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KOSPI 일봉 차트



자료: QV HTS,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3월 FOMC 금리인상 가능성,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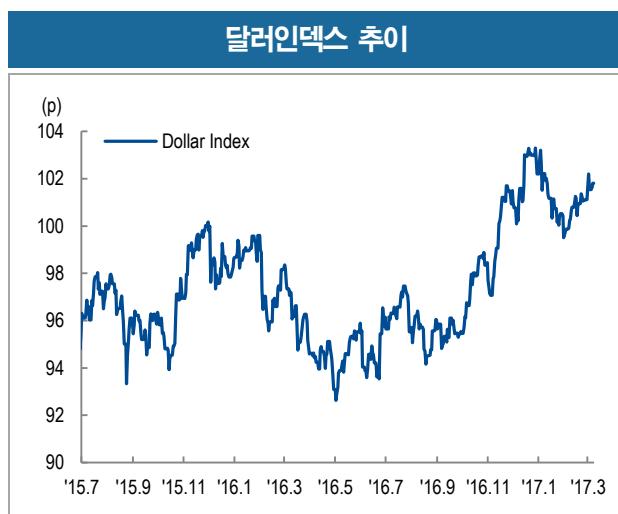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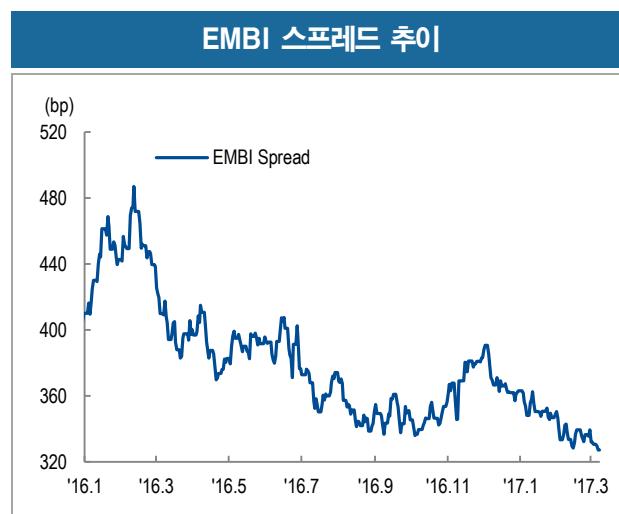
2. 3월 FOMC,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접근

금융시장의 리스크 지표의 안정적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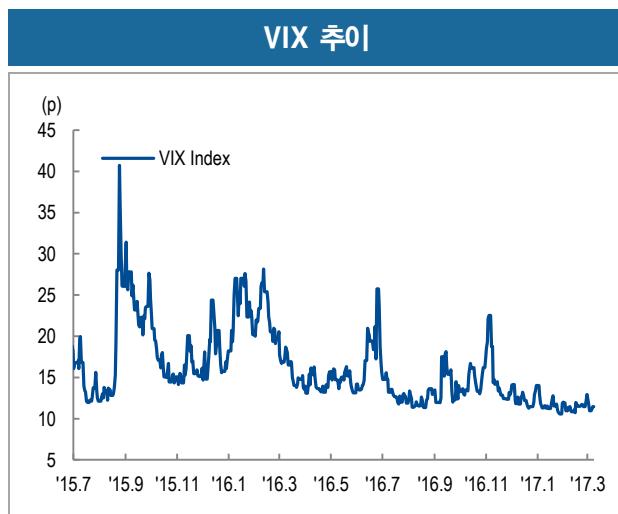
- 3월 FOMC에서 금리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달러화도 점진적인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양상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며,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은 기존의 상승흐름을 대체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글로벌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되며,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 및 유동성 축소 우려는 시간이 갈수록 약화될 전망이다.
- 실제로 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 지표들(VIX, EMBI Spread, Citi Macro Risk Index 등)이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어 위험자산 선호(Risk-On) 심리는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선진국 대비 신흥국 채권의 가산금리를 나타내는 EMBI Spread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내지 급격한 자금유출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이번 FOMC회의를 기점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불확실성 완화측면에서 상승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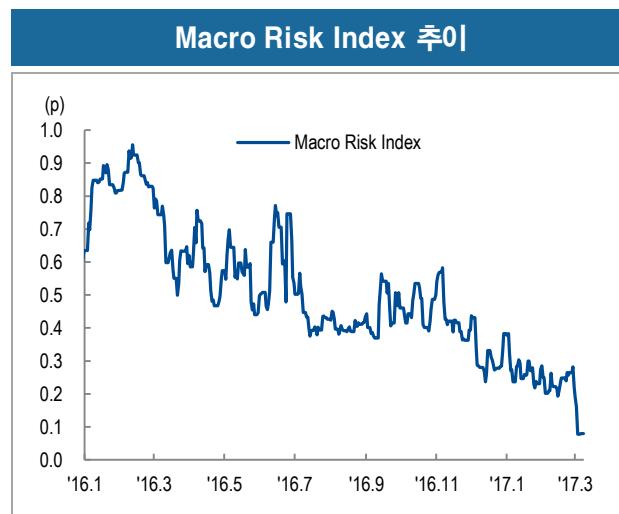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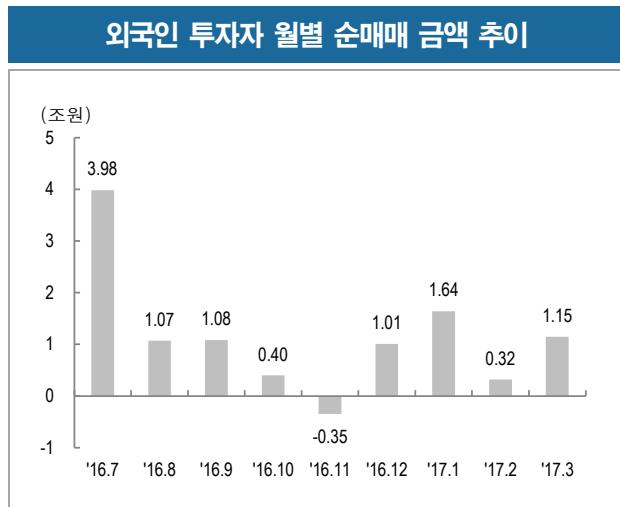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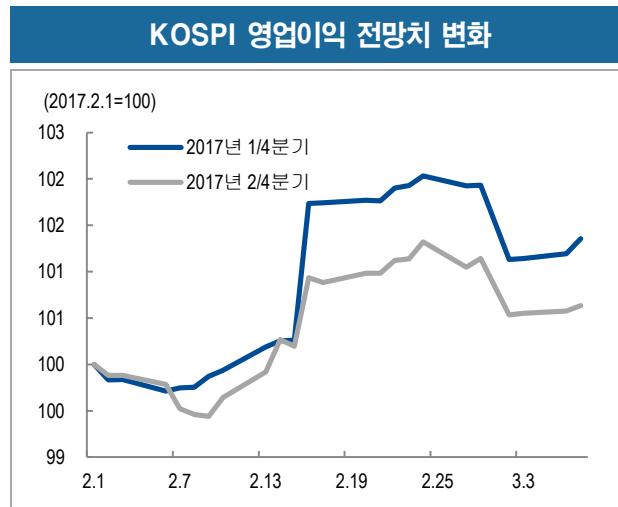
외국인 수급과 KOSPI 실적모멘텀 강화에 주목

-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2월초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확대와 함께 외국인의 매수세가 주춤하기도 하였지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재차 강화되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3월 들어 전일까지 5거래일 동안 1.1조원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매수강도가 오히려 강화되는 가운데 4개월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 그리고 3월 FOMC가 마무리되면 국내 증시는 1/4분기 프리어닝 시즌에 진입하게 되고, 투자자들의 관심은 점차 실적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2월 이후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점검해 보면 소폭이나마 상향 조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3월 들어 재차 상향 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 결론적으로 KOSPI와 KOSDAQ 양시장 모두 라운드 넘버이자 마디지수(KOSPI 2,100pt, KOSDAQ 610pt) 근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승탄력이 다소 둔화될 개연성은 있지만, 1) 불확실성 해소 및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매크로 모멘텀 강화), 2) 리스크지표의 하향 안정화, 3) 견조한 외국인 수급, 4) 국내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 강화 등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주: 3월은 8일까지 누적수치임

자료: DataGuide,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자료: DataGuide,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